

領域擴大와 經營合理化

展望的으로 擴大될 領域

먹는 것이 所重함을 온 人類社會에 빠져리게 알려준 것이 昨年 초가을의 世界 食糧波動이었다. 世界의 穀倉이라고 自他共認하는 美國이 食糧輸出을 禁止한 事實하나만 으로서도 1973년이 人類에 대해 울려준 큰 警鍾이었다. 하기는 73年 한해 동안에는 年初에 國際通貨危機를 겪었으며 겨울에는 石油波動도 當하였으므로 食糧危機와 더불어 3번의 受難을 한셈이다.

그런데 別項으로 言及하려는 바와같이 앞으로의 世界 食糧需給 事情은 人口의 爆發的인 增加와의 關聯에서 더욱 惡化될 公算이 높으며 그에 緣由해서 食品工業界에 賦課되는 役割은 加重되게 마련이다. 비록 景氣의 起伏은 없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世界的으로 經濟水準이 向上되고 특히 低開發國들의 그것이 食糧消費와 工業食品의 消費를 增大시킬 것은 變換 不疑의 事이다.

이러한 展望을 土臺로 해서 우리나라 食品工業界도 施設의 刷新과 擴大, 技術의 向上, 製品의 多樣化, 그리고 이와같은 生産與件의 近代化에의 接近으로 輸出增進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또 主·副 生産原料의 確保에는 특히 萬全의 關心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主·副 原料의 國內開發에 積極的인 努力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淸(外貨)이 있어도 原料를 海外에서 輸入하기 어려운 경우도 覺悟해야 할 事態展望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나친 杞憂도 假想的인 被害意識만도 아니다. 우리의 體驗을 通해서 얻어진 敎訓的인 結論인 것이다. 즉 昨年 가을 以來 小

尹 相 洙

(經濟評論家)

麥·牛脂 및 其他의 各種 主·副原料를 確保하기 위하여 食品工業界는 當황, 焦燥, 不安을 맛보아 왔으며 政府의 生産原資材(食品原料以外的 主要輸入原資材도)의 備蓄을 위한 輸入을 促進시키고자 特別金融의 惠澤을 주었던 것이다. 그後 品目에 따라서는 國際時勢가 크게 下落되어 計算上 「마이너스」를 認定할 수도 있으나 거듭 말하거나와 지난해 가을 以來의 食糧波動이 앞날을 위해서 좋은 敎訓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原料確保로는 위에서 말한 國內開發에 內資源의 限界性을 考慮하고 또 開發能力과 需要量이 「엔벨런스」에 對處하는 一般輸入 및 海外開發 輸入 등 多元의인 措處가 必要하다. 다만 그같은 여러가지의 方法중에도 國內開發이 특히 소망스러움을 거듭 強調할 뿐이다.

새겨지는 「말더스」 人口論

地球위에 人間이 存在해 있는 限 「食糧難問題」는 계속 存在할 것이며 그는 사람 또한 「먹어야만 산다」는 그런 意味에서의 弱한 存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相當히 긴 歲月을 두고 가마득하게 人類社會로부터 却忘의 對象으로 化해졌던 「말더스」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듯하다.

「말더스」는 人口學者로써 最初의 碩學이다. 그는 1797年の 「人口原則의 一論」이라는 第1版을 비롯하여 第6版까지 發刊하였지만 「人口論」은 第2版에 確立하였던 것이다.

歷史적으로 有名한 「말더스의 人口論」은 食糧이 算數級數의으로 밖에 增加할 수 없는데

「人口는 幾何級數의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豫言하였으며 그와같이 激增하는 人口對策으로는 積極的인 抑制策과 豫防的인 抑制策을 提示하였다.

그런데 積極的 抑制策은 既存人口 對策이며 豫防的 對策은 文字 그대로 未來人口 對策이다. 그리고 前者의 方法論으로 食糧不足에서 오는 不可避의 結果인 貧困과 惡德이 人口를 抑制한다고 論斷하였고 後者로는 晚婚과 婚後 産兒制限을 言及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말더스」의 人口論이 무색해질 만큼 人類社會는 食糧걱정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人口가 幾何級數의으로 늘어왔다고 말해서 過言이 아닐 정도로 增加해온 일 또한 事實이다.

이렇게 「말더스」의 豫言을 뒤엎을 만큼 食糧不足이 全世界의으로 없이 지낼수 있었던 原因은 ①食糧의 範圍가 넓어지고 ②人間의 食生活이 構造的으로 改竄되었으며 ③食糧의 加工化가 食糧效果의 놀라운 增大를 가져온등 여러가지의 點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말더스」가 食糧增産이 土地의 制約을 받기 때문에 算術級數的으로 밖에 늘수 없다고 그의 人口論에서 言及한 것으로서 알 수 있듯이 「말더스」는 地面을 통해서 食糧을 얻어낼 수 있는 食糧增産 以外の 길을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그 後의 事實인즉 當時 「말더스」가 豫想할 수 없었으리만치 食糧의 單位生産量이 늘어났음은 勿論, 食糧의 種目 즉 穀種이 부쩍 增加되고 人間食糧의 肉類·魚類·牛乳 및 其他에의 依存度가 漸漸 높아져 왔으며 食品工業의 發達로 말미암아 同量의 原料로 그 몇 倍의 食糧效果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등 食糧

增産의 效率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더스」가 말한 바와같은 積極的 抑制策과 豫防的 抑制策을 同時動員하여도 人口對策, 食糧對策은 오히려 未洽하게 될 展望이다. 즉 앞으로 26年後인 西紀 2千年에는 世界人口가 現在의 約 倍인 80約億名에 到達할 것이라고 人口學者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20萬씩, 따라서 1個月에 600萬名. 1년에 7,200萬名씩 늘어나는 世界人口가 앞으로는 每日, 每月, 每年 그增加率이 높아질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말더스」가 主張한 바와 같이 食糧增産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人口增加에서 오는 消費增加를 「카바하기 어려울 것으로 專門家들이 憂慮하게 된 것이다. 하기는 宇宙食糧時代를 云云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고 보면 「말더스」人口論以後 지금에 이르는 동안처럼 意外로 食糧危脅을 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이 생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 屬한 우리의 경우는 國際收支 關係로 보아서 食糧의 增産과 節約에 各별한 神經을 써야만할 形便이다. 外穀導入에 必要한 今年度의 外貨需要가 6億 4萬弗이라고 하기에 말이다.

勿論 우리나라의 食糧自給度가 國際比較에서 悲觀할 程度로 낮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2次大戰終熄後에 米穀增産에 몸부림친 結果로 쌀만은 남아 돌아갈 程度에 이른 日本이지만 食糧全體의 自給率은 50%를 약간 넘고 있을 程度이다. 그런데 우리의 食糧自給率은 70%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米穀만을 떼서 볼때 日本과는 對照的인 供給不足이어서 76年度가 自給自足の 目標年度로 되어있고 81

년에는 相當價의 쌀이 남아돌게 될 計劃이다. 食品工業의 主原料인 小麥이 自足自給 될 수 있을 時點은 아직 明確하지 않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相當한 期間 相當한 量의 輸入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米穀의 增産은 小麥需給 事情의 圓滑化와 直結된다. 왜냐하면 쌀의 供給量 不足이 곧 小麥消費의 增加要因이기 때문이다.

加工用 食糧 즉 食品工業의 加工原料 確保에 더욱 더 關心度를 높이도록 關係當局에 期待하고 싶다. 그 理由는 ①食糧의 附加價値를 높이고 ②雇傭増大의 要因이 되며 ③外貨獲得의 成長率이 「輸出有望株로서의 食品」이란 評價를 뒷받침하고 있는 實績이고 ④國民食生活改善 및 嗜好의 「칼로리」化에 길잡인 것 등이다.

綜合的인 經營合理化

經營의 合理化는 唯獨 食品工業界만의 課題는 아니다. 다만 食品工業界가 大部分 大企業體로 짜여져 있는 點과 食生活이 人類社會의 3大 生活要素의 하나인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食品工業界의 經營合理化는 各種 工業 分野중에서 比較的 적은 隘路들을 內包한 側에 屬한 業種이고 또 다른 業種들 보다 率先垂範的인 經營合理化의 成就가 바람직한 重要한 業種으로 손꼽혀진다.

原料문제는 이미 言及하였으므로 再論치 않기로 하고 生産의 管理(技術의 管理 包含), 人事의 管理, 販賣의 管理, 財政의 管理 등등 綜合的인 經營合理化가 要請되는데 여기서는 그 중 몇 個側面에 대해 言及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技術의 向上에 힘쓰는 食品工業界이기를 바란다. 食品輸出을 増大시킬 수 있는 가

장 重要한 關鍵이 品質의 高級化인데 品質向上은 技術向上으로 可期할 수 있는 일이다. 또 嗜好가 急「템포」로 變化하는 것이 現代人の 生理인데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食品에 대해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耐久財가 아닌 消費物資 중에도 특히 消費頻도가 높은 消費物資인 때문이다. 消費頻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時間的으로 봐서는 嗜好의 變化도 頻數해 지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消費者들의 不斷히 움직이는 嗜好에 대해 항상 새로운 味覺·視覺 등등을 불러 일으켜서 迎合하자면 製品이 多樣化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新製品의 研究開發이 促求되는 것이다. 生産管理의 그 大支柱가 原料의 確保와 技術管理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業種에 따라서는 어느 程度 必要度の 等差가 생길 수 있지만 食品工業의 경우는 그렇게 2大支柱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人事管理의 重要性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럽게 커진 것 같다. 사람이 남아들면서도 정작 쓸만한 사람은 不足하다는 理由以外에도 政府의 勞賃등에 대한 介入, 從業員 持株制의 懲罰등을 볼 수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人事管理 問題를 歷史的 및 社會的 背景에서 찾아 보고 싶다. 이러한 次元에서 人事管理의 重要性을 肯定하려는 것이다.

즉 人事管理문제 는 멀리 主從關係時代에 거슬러 올라가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 같다. 主從時代에는 지금의 使用人인 「主者」의 命令을 오늘날 從業員의 立場인 「從者」는 無條件 服從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主從時代」에는 主從間에 一定한 報酬約束이 없지만 主者는 從者를 먹이고 입을 義務를 스스

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自認하고 있으며 從者 또는 그를 當然視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의 時代가 勞動力의 等價交換時代로서 여기에는 主從關係의 義務나 優越의 膠着狀態가 完全止揚되고 使用人과 從業員, 즉 勞使間에 報酬受拂의 約束이 이루어져야 하며 雙方間에 그 就業期間 등의 拘束을 받지 않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其他條件이 같다고 한다면 使用人은 賃금이 싼 從業員을, 그리고 從業員은 賃金水準이 높은 職場을 擇하게 되는데 결국 줄만큼 주고 받을만큼 받는 勞動力(勤勞價値)의 等價交換時代가 왔던 것이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지금은 벌써 賃金水準만이 從業員의 去就를 左右할 수 있는 時代가 相當한 過程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賃金水準이 높기는 하지만 그 職場은 싫다」든가 「賃금이 좀 적으나 좋은 職場이다」라는 등의 새로운 比較觀이 생긴 것이다. 主從關係의 긴 歷史的인 束縛에서 풀려난 從者들은 職業自由選擇의 기쁨과 主從關係로 保障되었던 生活의 줄이 끊어진 데서 온 不安한 心理로 賃금을 많이 주는 職場이 가장 좋은 職場으로 서슴치 않는 結論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時代가 永續될 수 없으며 그 時代는 그나라 나름의 富가 長短을 左右한다. 勤勞者들의 生活水準이 어느 程度 높아지면 物的 報酬以外의 精神의 待遇 및 其他가 從業員들의 去就決定의 綜合的인 要因이 되고 만다.

賃金の 適正水準 維持와 人間關係에 또한 適切한 關心度도 가져야 하는 오늘날 企業들의 人事管理가 어느 意味로 보아서는 生産·販賣·財務 등등의 그 어느 쪽의 管理보다도 神經쓰여지는 管理分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財務構造의 健全化를 위해서 財務管理가 企業經營合理化에 寄與하는 程度 再吟味될 段階은 贅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結論하자면 食品工業의 經營合理化가 綜合的으로 그리고 可及的 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業界에 加重된 役割을 勘當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消費者的 公害 「노이로제」

소(牛)를 屠殺하기 前에 물을 많이 먹여서 斤量이 늘게 하고, 쇠고기와 生鮮에 染色을 하여 물건이 돋보이게 하며, 두부에는 異質物을 넣어서 量이 늘면서 水分維持力이 強化되어 原料가 적게 들도록 하는 二重效果를 노리고 고추가루에도 餵料을 섞어서 量을 늘리고 또 빛깔을 좋게 하는 등등 먹는 물건에 대한 여러가지 方法의 過剩商術이 消費者에 대하여 고기·生鮮·調味料 등등의 公害「노이로제」 걸리게 하고 있으며 各種의 不良醫藥品이 市 中에 汎濫하여 疾患에 걸린 市民으로 하여금 恐怖의 도가니 속에서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大勢로 보아서는 工業食品은 지금까지 大體로 두드러지게 消費者物議를 일으키지 않은편이었으며 그는 우리나라의 食品工業界가 지닌 그럴만한 理由가 있어서이다. 즉 大企業들이 生産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다. 韓國食品 工業協會의 會員社 25個業體와 그 「아웃사이드」를 합해서 約 40個業體가 國內需要 및 輸出品의 市場占有率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업체들은 영세규모로써 제품의 질도 대기업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아롱튼 生鮮·고추가루등등에 工業用 일지도모를 染料를 쓰거나 餵料을 混用하는 것, 그리고 效力이 없거나 또는 有害하거나 目的과는 다른 效果를 나타낼 수도 있을 不良醫藥品등과의 比較觀이 消費者心理를 支配하고 있는 實情이고 보니 分明 이땅에는 「消費者가 王」이란 것이 鄉愁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工業食品을 取扱하는 流通段階業者들은 더운 季節 中 工業食品의 變質이 빚어내는 消費者健康 收奪이 없게끔 物心兩面으로의 措置가 있어 주어야 하겠다. 즉 變質防止를 위한 冷凍施設등이 必要하며 施設效果만을 믿지 말고 品質管理에 대한 不斷의 注意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될 줄 안다.

「메이커」가 아무리 좋은 商品을 生産해 낸다고 하더라도 流通過程의 商業者들이 品質管理에 대해 施設과 注意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結果的인 不良商品으로 化해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 또 한가지 「메이커」에 대하여 指摘 要望할 것은 밀가루와 설탕 節約 특히 夏節이란 季節的인 關係에서 後者의 限界點을 지키는데 紐漏가 없어야 한다는 點이다. 예를 들자면 설탕을 節約하기 위해 물엿(水飴)을 쓰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나 各種의 工業食品에 설탕과 물엿의 混合率을 適切히 잡아야 할 것이며 品目에 따라서는 全然 물엿을 설탕에 代用할 수 없을것을 業者는 勿論 關係當局도 認定해야 될 것이다. 「드롭스」의 경우는 물엿을 쓰면 流通過程에서 녹아 내리거나 變質해 버리기 쉬우므로 安心하고 물엿을 쓸 수 있는 상품과는 對照的이다. 關係當局에서는 品目에 따라서 混合代用率을 달리해서 指導하고 「메이커」 또한 利害超越의 品質維持를 해야한다.